

## 내란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법원 손에 "민주당 수정안 마련"

민주당 추천위서 외부 관여 배제·대법관회의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내란재판부 2심부터…1심 설치 규정 두되 부칙에 '現재판은 未이관' 명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재판부 설치법 수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준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

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 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 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추천위 구성 방식 등은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일단 판사회의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관련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일부 사안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낸다고 평가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기준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전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기준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법 조문에는 1심부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되, 부칙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구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기존 법령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 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기준 안에 있던 내란 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 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사항을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의 주도로 내란전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해서 본 회의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법안 내용을 놓고 위원회나 당내에서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절차를 앞두고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란전재판부 설치법은 21 일 또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당론 주인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다"며 "원내대표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리를 한 뒤 최종안을 성안, 다시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심귀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 김천지역 취약계층에 연탄 3만 장 전달

김천지역 등 취약계층 100가구 함진구 사장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연탄 3만 장 전달



을 사용하는 전국 가구는 약 6만 가구이며 공사가 위치한 경북지역의 연탄 사용 가구 수는 약 2만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온기기득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2023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며, 이에 더해 지난 11일(목)에는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400가구를 대상으로 냉방용품(전기매트)과 간편식(김 세트) 등을 지원했다.

함진구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올해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김천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김천지역에 기반을 둔 공기업으로서 지역의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 한전KDN, 준감사인 역량 강화 회계 및 사업분석 워크숍

감사인 역량 평가와 연계한 감사 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강사 초청 회계 교육 시행



방안 ▲주요 회계 이슈 점검 및 위험 기반 감사 절차 수립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 공유로 실무 중심의 이해와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워크숍이 아닌 급변하는 기술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기업 경영에 대한 재무적 위험을 사전에 검증하고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로 청렴·신뢰 경영의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KDN 감사실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감사 환경 구축과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등 지속적 조직 신뢰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영진 기자

## KB국민은행, 현대자동차그룹·기술보증기금과 현대차·기아 협력사 금융지원

지난 3월에 이은 추가 협약 현대차·기아 협력사에 총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생산적 금융

가속화 대상 기업에 3년간 100%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전액 혜택 제공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그룹,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현대차·기아와 체결한 1천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협약으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해 협력사에 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50 억원을 재원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현대차·기아와 함께 총 2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지원 대상은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이며, 기업당 대출 가능금액은 50억원 이내이다.

결합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15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현대차·기아 협력사들에게 3년간 보증료 0.5%p 전액을 지원한다. 기보는 3년간 100% 보증비율의 우대보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KB국민은행에 총 1천억원을 예치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활용해 약 3.2% 수준의 협력사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 IBK자산운용, 'ITF 중기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ETF' 신규 출시



익(Alpha)을 목표로 한다.

IBK자산운용은 금리 사이클과 시장 수급, 신용 스프레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BK자산운용은 2023년 12월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ITF 200 ETF'로 ETF 시

기종합채권(AA-이상) 액티브 ETF'는 IBK자산운용에서 세 번째로 상장하는 ETF다.

이번 ETF 출시로 채권형 ETF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형 및 안정형 상품 라인업을 확장해 왔다는 평가다.

IBK자산운용 장민영 대표이사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 드레이션 채권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새롭게 출시한 ETF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의 가능성으로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자산운용은 "향후에도 연금 투자자와 연계된 최적화된 ETF 라인업을 집중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 신세계면세점, '쇼핑테마파크 IMC 캠페인' KODAF 대상

디지털 미디어와 자사 캐릭터 IP를 결합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입 확대

명동 중심권 3D 아나볼픽 영상 '쇼핑 테마 파크' 브랜드 경험 구축에 호평



특히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SNS)과 오프라인(명동점)의 경계를 허문 캠페인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동점 외벽 초대형 미디어 전광판 신세계스퀘어의 3D 아나볼픽 영상부터 명동 일대 주요 상권으로 확산된 미디어아트형 디지털 옥외광고까지 캠페인 점점을 넓혔다. 동시에 명동점 11층 휴게공간 스카이파크에 캐릭터 조형물·포토존·이벤트 공간까지 연계해 노출을 확대했다.

캠페인은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뚜렷한 성과를 냈다. 고객 조사를 통해 '명동=신세계면세점' 인식 전환이 강화됐고, 명동 및 주요 관광벨트에서의 브랜드 노출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의 자연 유입도 확대됐다. 스카이파크 체험존 방문객과 식품존 '테이스트 오브 신세계(TASTE OF SHINSEGAE)' 매출은 캠페인 기간 각각 25% 이상 상승했다.

매출 지표 역시 성과를 입증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025년 8~9 월 매출이 전월 대비 약 11.5%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고, 10월 매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이영진 기자